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2. 22.(수) 11:00 < 2.23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2.(수)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	책임자	팀 장 강규형 (044-203-49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성 (044-203-4935)

대산산단 석유화학업체와 신성대학, 채용연계형 화학공학과 개설

- 올해 화학공학과 첫 신입생 40명 입학, 기업 맞춤형 교육 예정 -

- 산업부, 기업 등과 인력·수출·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.22(수) 오후 충남 당진에 소재한 신성대학교에서 **대산단지 석유화학업체들과의 채용연계형 학과**를 신설한 후 처음 개최된 **입학식**에 참여하고, LG화학 대산공장을 방문하였으며, 대산단지 석유화학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.

< 개최 개요 >

▲ **참석자** : **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, 대산단지 7개 회사 대표**(LG화학, 롯데케미칼, 현대오일뱅크, 현대케미칼, 한화토탈에너지스, 코오롱인더스트리, 롯데엠시시), 신성대학교 김병묵 총장, 입학생 1,062명(화학공학과 40명)

▲ **주요일정** : ① LG화학 현장점검 (11:50~13:15)
② 신성대학교 입학식 (14:00~14:30)
③ 대산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(14:30~15:10)

□ 이번 신성대학교에는 **채용연계형 화학공학과 첫 신입생 40명**을 포함하여 제철산업과, 신재생에너지과 신입생 등 총 1,062명이 입학하였다.

□ 현재 **충청권 인력부족으로** 대산단지 내 석유화학업체들은 매년 300여 명의 전문대 화학공학과 인력을 **타 지역**(울산·여수) **출신으로 충원**하고 있다.

○ 이에, 매년 **60여명의 경력자들이 여수·울산으로 이직**하여 대산지역의 **인력난이 심화되고** 대산단지 업체들의 **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**되고 있었다.

□ 이에, 신성대학교와 대산단지 석유화학 7개 업체*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22년 협약을 체결하고 **채용연계형 화학공학과를 개설**하였다.

* LG화학, 롯데케미칼, 현대오일뱅크, 현대케미칼, 한화토탈에너지스, 롯데엠시시, 코오롱인더스트리

○ 우선, 대학은 학과 정원의 **일정 비율(30%)을 대산공단 인근 고등학교 출신자로 우선 선발**하여 **지역인재를 육성**하고자 한다.

○ 둘째, 대학은 학생들이 **석유화학 공장 운전자**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**기업과 함께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**하고 **기업 맞춤형으로 교육**할 계획이다.

○ 셋째, 석유화학업체들은 화학공학과 **성적 상위 50% 졸업생**들을 **우선적으로 채용**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○ 마지막으로, 대학은 추후에 서산시 특성화고 및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**지역인재 전형을 확대**하여 운영할 것이다.

□ **주영준 산업정책실장**은 입학식 축사를 통해 "어려운 시기일수록 **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**하며, 이번 채용연계형 화학공학과 신설은 미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."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"정부도 **산업 활력 회복이 가속화**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연계형 투자 등을 통해 **산업인재를 확보**할 것"이라며 말했으며,

○ "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, **우리나라의 기술인재로 성장하기를** 바란다"고 말했다.

○ 한편, 이번 계약형 학과는 **실무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** 등을 통해 대산단지 석유화학업계에 **긍정적인 효과**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.

□ 산업부는 수출·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**'현장 산업부'**를 목표로 하여 실물경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, **주영준 산업정책실장**은 금일 **LG화학 대산공장 현장을 방문**하였다.

○ 그리고 **주 산업정책실장 주재**로 **현장 간담회를 열어 인력·수출·투자·입지** 관련 대산단지 입주기업들의 **애로를 듣고,** 이를 **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겠다**고 말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